

Paik Nam June Still Image-Painting

Oct 1 - Oct 25, 2008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_요셉 보이스 Joseph Beuys

“존 케이지(1912~1992)가 완전히 성공하기 전에, 요셉 보이스(1921~1986)가 거의 무명일 때 나는 이들을 만나 놓았다. 동지로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기에 동등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커다란 행운이었다.”

_백남준

“백남준이 독일에서 인기가 높은 건, 알다시피 2차 대전 이전은 프랑스가 세계미술을,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했다. 독일은 변방이었는데 70년대 '요셉 보이스'와 함께 백남준이 혜성처럼 나타나 소리와 영상을 뒤섞는 '전자아트'를 창안해 독일미술을 세계적 위상으로 끌어올려 '아트스타'가 되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미술을 뒤바꾼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를 연결한 '다빈치' 같은 예술가였다”

_알프레드 하르트

백남준의 Still Image-Painting 속 요셉 보이스는 플럭서스 시절부터 백남준과 함께 해온 예술적 동지로서의 여정을 회상하게 한다.